



전주시새마을부녀회, 코로나 의료진에 대보름 음식 전달

전주시새마을부녀회(회장 강영아)는 지난 15일 정월대보름을 맞아 코로나19 방역과 예방을 위해 최전선에서 고생하고 있는 의료진들을 위로하기 위해 정월대보름 음식을 전달했다.

이날 부녀회 회원들은 전주시 화산체육관 선별진료소, 체련공원 선별진료소, 보건소 등을 방문해 직접 조리한 찰밥, 시금치 및 호박 나물 등 정월대보름 음식 300인분을 의료진들에게 전달했다.

전주시새마을부녀회 강영아 회장은 “코로나19 확진세 속에 방역 최전선에서 고생하는 진료소 의료진과 봉사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꼭 전하고 싶다”고 전했다. /김윤상 기자



인후3동 새마을협, 아름답고 쾌적한 우리동네 만들기 앞장

전주시 인후3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회장 황승일)와 새마을부녀회(회장 박임순)는 지난 15일 회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관내 취약지 환경정비를 실시했다.

이날 회원들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기aze 미로 일대와 복기재미 어린이공원 등 취약지에 불법 투기된 쓰레기를 정비하고 무성하게 자란 잡초를 제거하는 등 환경정비에 온힘을 기울였다.

황승일 새마을협의회장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개인 위생이 더 중요해진 만큼 회원들과 함께 동네를 깨끗하게 정비를 하니 많은 보람을 느꼈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임실군, 농촌지도자연합회 연시총회 가져

임실군이 지난 15일 군청 농민교육장에서 12개 읍·면 농촌지도자연합회 임원 42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연시총회를 가졌다.

이날 총회에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철저한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진행됐으며, 2022년 예산 설명과 주요 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주요 내용으로 영농 과제교육과 기후변화대응 협장 교육, 봉사활동, 탄소중립 실천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활동 할 계획을 구체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을 거쳤다.

농촌지도자 박세일 회장은 “올해는 농촌지도자연합회 회원들이 어려운 농업·농촌을 이끌어가는 리더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생활 속 탄소저감 실천에 앞장서는 한 해가 되도록 하겠다”고 큰 뜻을 밝혔다. /임실=진홍영 기자

“아동들의 면역력에 도움이 되었으면”

작은사랑나눔운동본부, 어린이 건강간식 100박스 후원

(사)작은사랑나눔운동본부(대표 이남숙)는 16일 덕진구(구청장 최현창)를 방문해 저소득 아동을 위한 500만 원 상당의 어린이 흥삼젤리 100박스를 기탁했다.

(사)작은사랑나눔운동본부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소년 소녀(기장, 독거노인, 장애인들에게 잊어버린 희망을 되찾고 용기를 주기 위해 설립된 서울의 비영리 단체로, 그 동안 전국 전역에 쌀, 김치, 미스터 기부를 비롯해 다양한 이웃돕기를 실천하고 있다.

이날 기탁된 흥삼젤리는 덕진구 관내 저소득 아동 및 아동복지시설에 전달될 예정이다.

이남숙 대표는 “코로나19, 환절기 상황 등 김영병에 취약한 저소득 아동들의 면역력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건강식품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가정 형편이 어려운 소년 소녀(기장과 독거어르신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도록 꾸준한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겠다”고 전했다. 최현창 덕진구청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도 꾸준한 나눔을 실천 중인 작은사랑나눔



운동본부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해 꾸준한 관심을 갖고 많은 도움을 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비전대, ‘2050’ 탄소중립 실천 행동 선언식

전주비전대학교(총장 정상모)는 16일 총장실에서 ‘2050’ 탄소중립 실천 행동 선언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릴레이 선언식은 지난해 전주시와 전주지역 6개 대학이 R(환경), S(사회)·G(지배구조) 공동실천 협약 내용 중 환경 분야 단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시대적 과제인 기후 위기를 극복하고 대학 주도의 탄소중립을 위한 생활 속 실천 행동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실내온도 여름철 26도, 겨울철 18~20도 유지하기 △미사용 컴퓨터 전력 차단하기 △계단 이용하기 △머그잔과 텀블러 사용하기 △재활용품 분리 배출하기 △음식 남기지 않기 등이다.

정상모 총장은 “탄소중립이란 시대적 과제가 미래 세대의 생존권을 지켜주는데 우리 전주비전대 학생들과 교직원들로부터 앞장서서 탄소중립 생활을 적극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순정축협, 계통사료 9만톤 판매 달성탑 수상



전북농협(본부장 정재호)은 16일 순정축협(조합장 고청인)이 농협경제지주로부터 계통사료 9만톤 판매 달성탑을 수상한다고 밝혔다.

이날 시상식에는 안병우 농협축산경제 대표, 정재호 전북농협 본부장, 김현수 농협 순창군지부장, 정준농협사료 전북지사장 등이 순정축협을 직접 방문해 달성탑을 수여하고 임직원을 격려했다.

계통사료 판매 달성탑 시상은 농협축산경제가 축산업 경쟁력 강화와 사료사업 발전에 기여가 큰 우수 축협에

대해 자금상을 고취하고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매분기 계통사료 판매 실적을 평가해 시상하는 제도다.

고청인 조합장은 “코로나19 장기화 및 국제원료가격 급등으로 축산경영환경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조합원과 임직원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해

주었기에 달성탑 수상이 가능했다”며 “앞으로도 계통사료 공동구매 확대를 통해 축산 농가들의 농업경쟁비 절감 및 조합원 실익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부안군,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시행

부안군(군수 권의현)은 전북서부보훈지청(지청장 김영진)과 함께 지난 16일 부안읍 김선옥 무공수훈자유족 자택을 방문하여 감사와 존경의 의미를 담아 국가유공자 명패를 달아드렸다.

이날 시범행사를 시작으로 전상군경유족, 무공수훈자유족, 공상군경유족, 보국수훈자 유족 등 181명의 자택에 읍·면장, 유관기관 단체장·이장 및 봉사단체를 활용해 명패를 달아 줄 예정이다.

권의현 부안군수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 유족을 만나 직접 명패를 달아 드릴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보훈 가족들의 명예와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분위기 조성과 각종 지원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은 지난 2019년부터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라는 사회적 예우 분위기 확산을 위해 국가보훈처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시작됐으며, 지난해까지 630명의 국가유공자 자택에 명패를 달아드렸다. /부안=김석진 기자

국립태권도박물관 운영 전문가와 함께… 자문위원회 출범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오승환)은 16일 태권도원 운영센터에서 ‘국립태권도박물관 운영자문위원회 위촉식’을 갖고 1차 자문회의를 기졌다.

이번 운영자문위원회 출범은 국립박물관으로서의 역량과 위상을 강화하고 박물관 운영의 전문성을 강화·확대하기 위해 구성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진흥정책위원회 전보살 박사를 위원장으로, ‘박물관 운영 및 전시’와 ‘태권도 및 자료수집’ 등 2개 분야에 7명의 위원이 활동하게 된다.

자문위원들은 태권도 역사와 유물을 기반으로 국립태권도박물관 운영과 전시 등 사업의 적절성과 운영의 효율성을 확인하고 전문성 강화와 국립박물관으로서의 위상제고를 위한 자문을 맡게 된다.

태권도진흥재단 오승환 이사장은 “문화계, 학계, 태권도계 등 분야별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라며 “운영자

문위원회를 통해 국립태권도박물관이 태권도에 대한 한층 깊은 연구와 무에 전반에 대한 표용성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

